



KARMSS NEWS

미국 장로교 한인은퇴목사 및 사모회 회보 소식지 9월호

KOREAN ASSOCIATION OF RETIRED MINISTERS & SPOUSES & SURVIVORS PRESBYTERIAN CHURCH (U.S.A) -KARMSS-



발행인 : 최명배

발행일 : 2015년 9월 10일

편집인 : 이유신

2015-2016 임직원

Moderator: 최명배 목사
TE Myong Bae Choi
mbkschoi@yahoo.com
904-993-8659

Vice Moderator: 오광섭 목사
TE Kwang Sup Oh
kwangsupoh@live.com
571-264-9190

General Secretary: 이유신 목사
TE Yushin (Joshua) Lee
yblee@ucdavis.edu
530-902-0562

Secretary: 박오현 목사
TE O"Hyun Park
parkohyun@gmail.com
336-501-5831

Treasurer: 이원걸 목사
TE Won Keol Lee
wonklee@hotmail.com
407-864-0046

Welfare Committee: 안창의 목사
TE Chang Eui Ahn
nypastorahn@gmail.com
718-702-7007

Mission Committee: 김경재 목사
TE Kyung Jae Kim
kimkyungjae@yahoo.com
559-936-0381

Fellowship Committee: 이충남 목사
TE Chungnam Lee
chungnam44@gmail.com
718-309-8392

Auditor: 천방욱 목사
TE Paul Chun
pauljchun@yahoo.com
818-606-3139

Auditor: 이종민 목사
TE Jong Min Lee
jongminlee0822@gmail.com
224-558-1667

존경하는 KARMSS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대로 끝난 것인가?

5대 4라는 미묘한 미연방대법원의 표결로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이 연방법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케네디 판사의 전통적 결혼관 수호를 기대했었으나 Swing Vote을 던짐으로 해서 동성결혼 지지판결이 나왔고, 이제 미국, 아니 인류의 결혼관과 이와 관련된 도덕적 가치에 필연적으로 심각한 변화와 사회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성서적 결혼관을 존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변혁의 와중(Critical Juncture)에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간을 신성하게 지키기 위하여 이 변혁의 물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한 가지 방법은 앉아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강권적 섭리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불가항적 억압 아래 있을 적에 하나님은 강한 팔을 펴서서 억압 받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신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대처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은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오늘의 변혁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의 섭리에 책임적 동참으로 오늘의 현실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합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현실을 내다 봅시다. 돌이켜 보면, 동성애 지지의 물결이 사회 변혁의 힘으로 대두된 역사는 지극히 짧습니다. 불과 50여년 전만 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을 동정의 소수로 보았지 전통적 결혼관을 뒤흔드는 위협으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

다. 지난 사, 오십년 동안 동성애 지지의 물결이 점점 거세게 밀려온 반면, 성서적 결혼관 수호를 위한 노력은 미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관을 수호하는데 무관심했고 게을렀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통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며 성서적 결혼관을 힘써 외쳐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결혼관을 5명의 연방대법원 판사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성서적 결혼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믿는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동등한 참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미연방대법원에서 5명의 판사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을 적에 동성결혼 지지자들은 개선의 만세를 불렀지만, 성서적 결혼관을 수호하는 사람들에게겐 경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백성들이 깨어날 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성서적 결혼관을 수호하려는 투쟁에 여러가지 고무적 현상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과 주정부 판사들이 연방대법원의 6월 26일 판결을 반대하며 주정부 법안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하원 법사위원장인 Andy Gipson은 "미연방법원의 5명의 판사들의 결정이 우리 미시시피 주민들의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결혼 정의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만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기독교 신념을 법원이나 문화의 변덕에 맞추지 않겠습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캔사스 주지사 샘 브라운백은 캔사스에 있는 종교 단체의 성직자가 "캔사스와 미국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종교적 자유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캔사스 주에서는 교회가 동성결혼식을 거절할 수 있고, 기독교 입양단체가 동성부부에게 아이 입양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미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의 판결이 번복될 수 있는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이 동성결혼 지지자들에게 5대 4로 손을 들어준 것이라면, 앞으로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의 물결로 동성결혼을 5대 4 또는 6대 3으로 번복될 수도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연방법으로 인정되었어도 연방대법원장인 Jon Roberts의 말 처럼 미국의 가장 큰 헌법까지 바뀐 것은 아니며, 나머지 4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이번 판결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법적 이유들을 등재하였습니다.

또한 성경적 결혼관을 존중하는 각 주의 정치 지도자들은 The First Amendment로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알라바마주 정치 지도자들, 텍사스주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 SB 2065" 등, 전에는 조종했던 동성결혼 반대 의 외침과 행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저들의 의지와 노력이 힘겨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일심으로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원을 보낼 때입니다.

2016년 대선을 위하여서도 기도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The Fellowship Gathering (PCUSA, 8/18-20/2015, San Diego, CA)을 위치하여 여러 보수교단의 성서적 결혼관 수호를 위한 기도모임과 행동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현상만 보면 내일이라도 세상이 몰락할 것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상(Phenomenon)의 저변에 본질(Intrinsic Nature)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질의 역사를 자기의 정하신 의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역사의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임받는 주역으로 이 변혁의 시대를 바로 잡아갈 소명에 기도와 행동으로 임해야 할 때입니다.

회장 최명배 목사

총회 보고

2015년 6월 17-18일 장소: Hilton Washington Dulles Hotel, Herndon, VA

▶ 1부, 여는 예배

6월 17일 오전 10시에 회장 류제원 목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부회장 최병배 목사의 인도로 시작하다. 찬송가 9장 (새)를 부른 후에, 이종민 목사의 기도와 이정열 사모의 성경 읽기 (요 21:1-7)에 이어 이재호 목사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의 제목으로 설교하다. 소천하신 9명의 목사 (이영민 목사, 임원준 목사, 박장원 목사, 이승만 목사, 신창윤 목사, 신삼희 목사, 황재열 목사, 이규형 목사, 유제선 목사), 2명의 사모 (임준복 사모, 홍정자 사모)와 2명의 준회원 (Samuel H. Moffett 목사, Donna Rae Han - 한혜원 목사 사모)을 위한 윤명호 목사의 추모 기도가 있는 후에 김용주 목사의 축도로 예배 순서를 마친다.

▶ 2부, 정기 총회

회장 류제원 목사의 개회사와 기도로 시작하다. 총 54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음을 서기 박오현 목사가 보고한 후, 회장이 개회 선언을 하다. 전 회의록을 서면으로 받고, 윤문수 목사와 노재상 목사의 감사 보고가 있는 후에 회계 이유신 목사의 회계 보고(총 수입 \$25,648.62, 총 지출 \$22,009.02, 잔액 \$3,639.60)를 받다. 총무 홍춘만 목사의 보고 (KARMSS NEWS 3회발간, 교회와 개인으로부터의 후원금 \$16,500 수령)의 보고와 복지부장 안창의 목사의 연금국 소식(내년 연금 4.5% 인상), 친교부장 이충남 목사 (생일카드 발송)의 보고를 받다. 현의안 보고와 토의 및 결정사항으로,

1) 조의금 \$150의 지불 대상은 회원 수첩에 이름이 있고, 회비를 낸 회원들에 한하되 예외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2) 면류관 재발행 건은 재론하지 않기로 하다.

신구 임원의 교체와 서약: 증경회장단이 최명배 목사를 회장으로, 오광섭 목사를 부회장으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다. 신임 회장단이 지명한 총무 이유신 목사, 서기 박오현 목사, 회계 이원걸 목사, 복지부장 안창의 목사, 친교부장 이충남 목사, 선교부장 김경재 목사, 감사 이종

민 목사와 천방욱 목사의 인준이 있는 후에, 김대균 목사의 주관으로 신구 임원교체와 서약식을 가지다. 제13대 회장 류제원 목사의 퇴임사와 공로패 전달이 있는 후에 제 14대 신임 회장 최명배 목사가 취임사를 하다. 신 안건 토의로, 회원 수첩의 매년 발간 건과 KARMSS NEWS(회보)의 기사 내용과 format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 김진훈 목사의 기도로 폐회하다.

▶ 3부, 축하

복지부장 안창의 목사의 사회로 축하연을 갖다. 신임 회원 (서정길 목사, 여명자 목사)의 환영과 8순 회원(김대균 목사, 김용주 목사, 천방욱 목사), 7순 회원 (김경재 목사, 배숙희 목사, 안연주 사모), 결혼50주년 (김대균 목사와 신등자 사모, 신현정 목사와 신숙희 사모, 김용주 목사와 김익자 사모) 기념으로 축하를 하고 케익을 나누어 먹으며 친교를 한 후에 기념 촬영을 하다. 그리고 연 회비를 납부하고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275의 보조비를 지급한 후에, 회장 최명배 목사의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친다.

▶ 광복 70주년과 6.25 사변 65주년을 기념하고 특히 분단 70년을 기하여 조국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뜨거운 특별기도회를 총회 기간중인 6월 18일 오후에 Washington Memorial Park (6.25 참전용사 기념탑 앞에서 NCKPC 및 KARMSS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KARMSS 회장 최명배 목사의 사회로,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낭독, 찬송가 586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평화의 기도 (남선교회 김영철 장로), 통일의 기도 (여선교회 김한나 권사)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동부한미교회 원로 회원목사 (길웅남, 윤명호, 김용주)와 남후남 장로가 태극 위에 십자가를 색인 ‘손태극기’와 ‘분단 70년’의 피켓을 들고 애국가 제창, 통성기도와 함께, 만세 삼창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나라 만세, 미합중국 만세)을 류제원 목사 (직전 KARMSS 회장)의 선창으로 <경천동지>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기독일보 기사에서, 윤명호 목사 제공>

제 1-3회 임원회의의 결정사항

1. 지역 담당 통신원으로 수고하신 동북대회 지역 윤명호 목사의 후임으로 안창의 목사, 중대서양 지역 박관준 목사의 후임으로 신동환 목사, 남가주 지역 홍춘만 목사의 후임으로 김국진 목사, 한국지역 양해건 목사의 후임으로 백도현 목사를 각각 위임하기로 하다.
2. Nicaragua에서 선교하면서 수 개월의 옥고를 치르고 있는 전 구 목사에게 선교비 (\$500)와 기도로 후원하기로 하다. 지금은 무혐의로 석방되어 회복 중에 있음을 감사하다.
3. KARMSS NEWS는 연 3번 (9월, 2월, 5월) 발간하고, 표지 상단 오른쪽에는 PC(USA) logo를, 왼쪽에는 현존하는 KARMSS logo를 넣기로 하다.
4. 회원의 사진이 들어가는 회원 수첩의 발간은 2년에 한 번씩 하되, 변경되는 사항은 회보나 email로 알리기도 하다.
5. KARMSS 회원의 자격은 회칙에 규정된대로, 은퇴한 PC (USA) 한인 목사 (즉 미국장로교 노회원으로 입적된 한인 목사)와 그 배우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필하고 KARMSS 회칙을 수락한 자임을 다시 확인하고, 회원 신청서와 회비를 낸 박정도 목사, 윤영근 목사, 조남홍 목사, 문준섭 목사를 회원으로 수락하다.
6. 앞으로의 모든 모금 활동에 있어서, 회장과 총무의 명의로 된 모금 내용의 편지 우송과 임금관리는 회계가 하기로 하다.
7. 2015-2016년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토의하고 아래에 프린트한 바와 같이 가결하다.

금 회기 (7/2015 – 6/2016) 예산안

경상 계정	2014 – 2015	2015 – 2016	경상 계정	2014 – 2015	2015 – 2016
수 입	결 산	예 산	지 출	결 산	예 산
이월금	\$5,458.56	\$3,428.37	사무비	\$2,506.15	\$2,000.00
교회및개인후원금	\$17,500.00	\$17,500.00	선교부 선교지원	\$1,500.00	\$3,500.00
회원 회비	\$2,870.00	\$3,000.00	복지부 경조비	\$750.00	\$1,500.00
NCKPC 사역재단	\$980.00	\$3,000.00	친교부 생일카드	\$ 34.50	\$ 350.00
및 2세 목회 지원금			주소록 (회원수첩)	\$1,645.00	\$0
			Newsletter 제작	\$1,199.00	\$1,350.00
			회의비	\$1,410.60	\$1,500.00
			총회 참가 회원 보조비	\$14,025.00	\$15,000.00
			기타 (예비비)	\$309.94	\$1,728.37
수입 총계	\$26,808.56	\$26,928.37	지출 총계	\$23,380.19	\$26,928.37

결혼 정의 수정에 관한 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행동 결의문

<주: 지난 6월 18일, 제 44회 NCKPC 전국총회 는, 미국장로교 규례서의 “결혼정의 수정안” 통과에 대한 NCKPC의 입장을 표명하는 행동 결의문을 통과하여 동성 결혼을 불허하였고,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한인교회가 소극적으로 현실을 피하거나, 방관하거나, 변명하기 보다는 이 때를 위하여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고, 더욱 더 복음을 위한 선교적인 교회 (Missional Church)로의 부름에 헌신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우리 KARMSS 회원들은 후배 동역자들을 더욱 격려하고 위로하며 이 결의에 기도와 행동으로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우리는 130년 전 한국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지금까지 계속되어져 오는 미국장로교단 (PCUSA) 과의 선교적 협력 관계에 감사한다.

하나. 이 시대를 향하여 열려진 문화적 시각과 더불어 성서적 전통을 고수하기를 결단한다.

하나. 교단헌법의 개방성이 반영된 동성결혼 주례나 시설 사용은 개교회 목사와 당회의 신앙 양심에 따라 불허해야 함을 NCKPC 는 천명한다.

하나. 개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노회에서나 한미노회에서 개혁주의 전통을 계승하는 노력에 더욱 매진한다.

하나. 교단의 복음적 단체와 연계하여 교단내에서의 시대적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한다.

하나. 교단 안팎에서 일어나는 왜곡된 편견에 대해 적극 대응하며, 협력 관계에 있는 국내외 교단들과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하나. 우리는 복음을 위한 디아스포라 한인 이민교회의 역사적 사명을 자각하여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 로의 부름에 더욱 헌신 할 것을 결단한다.

44회 NCKPC 전국총회 참석자 일동 (2015년 6월 18일)

NCKPC 산하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님들에게

점차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힘쓰시는 지교회 목사님들과 지도자들 위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목회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매년 열리는 NCKPC 연례 총회에 참석하여 주님 안에서 동역자의 교제를 나누며 당면한 이슈들에 대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지난 해에도 은퇴목사 및 사모회(KARMSS)를 물질적으로 도와 주셨음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지교회의 형편에 따라 매년 도와 주시는 후원금(\$100, 200, 300, 500 혹은 그 이상)은 NCKPC 총회에 참석하시는 은퇴 목사회 회원 부부와 홀사모님, 약 50 여명의 등록비와 air ticket 경비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도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저희 회원들도 귀교회의 부흥 발전에 기도와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금 (Payable to **KARMSS**)은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Rev. Won K. Lee
1288 Autumn Wood Trail
Sugar Hill, GA 30518

미국장로교 한인은퇴목사 및 사모회

회장 최명배 목사
회계 이원걸 목사



각 지역별 회원 소식



Synod of Northeast (동부한미노회, NY, NJ, MA, CT) / Synod of Trinity

통신 담당-윤명호 목사님 (201) 461-7656(집), (201) 370-8200(M) koamyoon@gmail.com

- ▶ 동부한미노회 (사무총장 - 조문길 목사, 노회장-김진호 목사): 오는 9월로 제75회 정기총회를 앞둔 본 노회는 대화와 친교의 장을 마련하는 '1일 야유의 날'을 8월 31일 뉴욕 북부 Mohonk Mountain House (New Paltz NY)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 ▶ 회원 동정: 대부분 다 평안하며 여름 동안 주로 방문 (가족 자녀, 친지, 여행 등)과 휴양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유교 가정에 대해서만 알려드리오니 축하/위안/격려 등 기도 부탁드립니다.
- ▶ 김용주 목사님 (김익자 사모님) - 6월총회 후 동부한미노회 원 17명을 Crab House로 초청 천하일미의 crab party를 배설하고 과분한 사랑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 ▶ 유성애 사모님 - 지난 6월2일 92세를 일기로 유제선 목사님 (에리자베스교회-원로)께서 소천, 5일 영결식을 엄수하였습니다. 조문을 해주신 KARMSS와 교회, 동역자 여러분에게 유가족의 감사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 ▶ 박태의 목사님 - 변경: Watermark Logan Sq. Assisted Living, 2 Franklin Town Blvd., Box 1004, Philadelphia, PA 19103. (215) 575-9504
- ▶ 신영애 사모님 - 지난 4월 5일 85세를 일기로 신삼희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후, 1년 남짓 목사님의 병환 간병으로 과로 회복 중 경미한 수술을 거쳐 회복하시고 7월 하순 미쉬간 아드님댁으로 1주간 여행하셨습니다. 조문을 해주신 KARMSS와 교회 및 동역자 여러분에게 유가족의 감사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 ▶ 신태균 목사님 (Joy 사모님) - 지난 7월 가족모임을 위하여 Denver, CO 에 여행하셨습니다. 손자-첼로연주자.
- ▶ 박상근 목사님 (윤의조 사모님) - email: timewave@live.com 을 신설하셨습니다. KARMSS NEWS 소식지를 받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시면서 내외분이 110세 노익장을 유지하시겠다고!
- ▶ 양희철 목사님 (양병순 사모님) - 은퇴후 나성으로 이주하
- 셨다가 지난 6월초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 ▶ 윤명호 목사님 (윤경실 사모님) - 지난 5월20일 사모님의 병환정양을 위하여 한소망요양원 (NJ)에 입원, 적응하시면서 자녀들의 극진한 위안을 받고 계심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 이상현 목사님 (이인숙 사모님) - KARMSS NEWS소식지를 받으시고 감사 서신을 보내주셨습니다.
- ▶ 이하의 회원가족들은 특기사항이 없으며 더욱 건강관리와 성향에 따르는 취미생활을 계속하십니다 (존칭생략). 강은홍, 권영섭, 김관선, 김동석, 김득해, 김지수, 김진양, 김평, 림인환, 문 풀, 문동환, 배숙희, 안창의, 유상학, 유태영, 이동승, 이성의, 이성철, 이승익, 이종성, 이종안, 이충남, 장경자, 정영자, 조덕현, 조신일, 최삼우열, 한은옥.
- ▶ 특별감사:
 - + '회원수첩'('15~'16) - 기다리던 KARMSS의 선물입니다. 깔끔하고 더욱 규모있는 체제는 물론, 손색없는 편집과 내용, 선명한 칼라인쇄에서 풍겨나는 친숙함은 더욱 회원간의 친밀도를 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늘어감이 아니고 무르익어가는 회원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끈끈한 '정'을 더해감은 KARMSS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이 확증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작업 위해 애쓰신 류제원 (직전회장)목사님께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 + 홍춘만 목사님 - 지난 6년간! 특히 사모님의 소천(12/'14)을 전/후하신 어려움 중에서도 맡으신 중책(총무, 소식지 발행, 통신원, 후원모금 등)을 위해 '일사불란' 수행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년간 귀국 중에도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정했던 귀국 길은 잠시 마르고, 지난 7월말부터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Salisbury, MD) Interim목회길로 급전회하셨습니다.
 - ▶ 새 임원진 - 1년간 본 회를 위하여 봉사하실 새 임원진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Synod of Mid-Atlantic (대서양한미노회, MD, NC, VA)

통신 담당 - 박관준 목사님, (703) 963-5283 (M) kwanpark@yahoo.com

- ▶ 김윤국 목사님 - 따님댁에 거하시며, 워싱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 ▶ 박관준 목사님(박능복 사모님) - 워싱턴지역 원로목사회 임원으로 수고하십니다.
- ▶ 박오현 목사님(박희선 사모님) - NC한국뉴스에 칼럼도 쓰시며 KARMSS 서기로 2년째 수고하고 계십니다.
- ▶ 신성국 목사님 - 심장수술 후 병원에 입원중에 계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오광섭 목사님(오용정 사모님) - 부부가 건강하시며 은혜합창단원으로, 그리고 탄자니아선교회 이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논산훈련소 진중세례식을 집례하시고 오셨고, 9월에는 탄자니아선교지의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예정이



각 지역별 회원 소식



십니다. KARMSS 부회장이 되셨습니다.

- ▶ 이승태 목사님(이정열 사모님) - Fayetteville (NC) 교회에서 인터림목사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 ▶ 조남홍 목사님(김안순 사모님) - 대서양 한미노회 노회총무로 15년간 수고하시다가 금년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대서양 한미노회 임시 총무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 ▶ 황문규 목사님(황덕시 사모님) - 목사님 신앙간증서인 Power of Dream, Love, Mission이 중국어로 출판되어 Amazon.com에서 판매중에 있습니다

- ▶ 이 열 목사님(이희분사모님) - 14년간 알래스카주에서의 목회를 마치고 은퇴하셔서 두 분 모두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다.
- ▶ 서준덕 목사님, 신동환 목사님, 윤여천 목사님, 윤학석 목사님, 장일형 목사님, 필유일 목사님, 한혜원 목사님, 황수봉 목사님 등은 모두 건강히 지내고 계십니다.
- ▶ 감사 - 그 동안 중대서양 지역의 KARMSS 통신원으로 수고하신 박관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신동환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Synod of South Atlantic (GA, FL, SC)

통신 담당 - 김진훈 목사님, (678) 402-5769(집), (678) 697-8726(M) mariettajin@yahoo.com

- ▶ 박창환 목사님 - 9순의 고령이심에도 건강하셔서 지난 4월에는 장신대에서 강의하러 한국에 가셨다가 7월에 애틀란타로 돌아오셨습니다. 7월 하순에는 아들 목사님이 원장으로 부임한 멕시코 유카탄에 있는 선교센터로 현지인 교역자훈련 인도를 위해 그곳에 가셨습니다. 새로 이사하신 애틀란타의 주소와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 2911 Cardina Lake Dr. NW, Duluth, GA 30096
전화: (770) 356-1952
- ▶ 심만수 목사님 - 지난 4월 말에 한국에 사모님과 함께 가서 2개월 동안 좋은 시간을 가지신 후, 6월 말에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 ▶ 윤문수 목사님 - 약 2주 동안 목사님 내외분께서는 한국에서 따님이, 그리고 텍사스에서 아드님이 와서 함께 RV로 애틀란타를 출발하여 캐나다의 서북부 지역인 밴쿠버, 칼가리, 벤프, 제스퍼 등을 관광여행을 하시고 무사히 애틀란타로 돌아오셨습니다.

- ▶ 전상완 목사님(김미리암 사모님) - 몇 년 전에 은퇴하신 후 따님 가족이 살고있는 애틀란타로 이사오신 후에 이곳에 있는 Underwood 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 초교파 원로목사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은퇴후에 “교리해설” (한글판)과 영문판인 Principles of Christian Faith”를 출판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의 한글판과 영문판도 출판하셨습니다.
 - ▶ 최명배 목사님 - 홀로리다의 잭슨빌 한인장로교회에서 2년째 인터림 목사님으로 계속 사역하고계십니다.
 - ▶ 김진훈 목사님 - 13년전 은퇴 후, 처음으로 인터림 목회를 했던 알라바마의 서머나 한인장로교회에 담임목사님이 떠남으로 인해 설교목사로 격주로 먼 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 * 그 외의 이곳의 KARMSS회원들께서는 골프 등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Synod of Living Waters (TN, KY, MS, AL) / Synod of Sun (TX, OK, LA)

통신 담당 - 김석인 목사님, (713) 385-7244 (집), (713) 320-7335(M) revskim@hotmail.com

- ▶ 박대웅 목사님 - 내외분께서는 건강의 어려움은 좀 있으나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계십니다. 지난 7월에는 낙스빌 한인교회에서 출타중인 담임 목사 대신 주일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8월 9일에는 낙스빌 한인교회 창립 37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 ▶ 김대균 목사님 - 빛나리교회 임시 당회장 마치고 사모님과 함께 대륙횡단 4000마일 여행하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 ▶ 류제원 목사님 - Family reunion 으로 3대 20명이 함께 Smoky Mountain, Tennessee에서 한주간 휴가를 즐기셨습니다.
- ▶ 김석인 목사님 - 내외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가을 학기에 이곳 Souther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구약학을 강의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 그 외에 이연길 목사님, 이영자 사모님, 임외행 사모님 모두 주은중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각 지역별 회원 소식



Synod of Covenant (OH, MI) / Synod of Lincoln Trails (중서부한미노회, IL, IN) / Synod of Lakes & Prairies (NE, WI, SD, ND, MN) / Synod of Mid-America (KS, MO)

통신 담당 - 노재상 목사님, (847) 674-8767(집), (630) 452-5335(M) jaysanglo@yahoo.com

- ▶ 김득렬 목사님 - 8월 9일 인디애나에서 목회하신 김응률 목사의 90회 생일 축하시 설교하시고 오셨습니다.
- ▶ 구은영 사모님(구영한 목사) - 건강한 몸으로 계속하여 교회와 노회에서 봉사하심.
- ▶ 박동원 목사님 - 지난 여름 South Carolina 지역 따님댁에 다녀 오셨습니다. 810-750-3663
- ▶ 노재상 목사님 - 8월 하순 10일 예정으로 로스엔젤스와 샌디에고 방문.
- ▶ 박준희 목사님 - 교회와 지역사회 봉사자로 계속 수고하고 계심.
- ▶ 신현정 목사님 - 여름철 캐나다 렉키 마우틴 지역 뱀프와 자스퍼 여행을 하시고 돌아오심.
- ▶ 안덕치 목사님 - 내외분 건강을 유지하며, 인근 교회를 방문하고 계심.
- ▶ 양형춘 목사님 - Japan, Osaka 지역으로 이주하여 계속 선교에 전력하심. 미국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을 늘 생각하고 계신다고 함. revyang406@i.softbank.jp
- ▶ 이종민 목사님 - Nashville 한인교회 임시목사로 직무를 마치고 시카고에 오신 후, 라스베가스 교회 임시로 봉사하고 계심.
- ▶ 이종형 목사님 - 에티오피아 선교지에서 귀국한 후, 각 교회에서 설교 강사로 수고하심.
- ▶ 최인순 목사님 - 내외분 건강을 유지하며, 인근 교회를 방문하고 계심.

Synod of Pacific (CA-북가주, OR, NV)

통신 담당 - 김경재 목사님, (559) 936-0381(M) kimkyungjae@yahoo.com

- ▶ 김경재 목사님 - 전년 학년말에 은퇴하려 했으나 사정이 있어서 오는 12월 말에 학교 생활에서 은퇴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곳 몬트레이 영락 교회 목회자의 공석으로 자주 설교도 하시고 계십니다.
- ▶ 김영한 목사님 - 건강을 위하여 걷기 운동과 수영에 심취하고 계십니다.
- ▶ 김인식 목사님 - 지난 봄에 한국을 방문하시고 북한과 중국도 방문하셨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양 봉수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인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여동생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중국 심양 서탑교회에서 집회를 하셨으며 활빈의 흑룡방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셨습니다.
- ▶ 김창의 목사님 - 그 동안 라이프대학 국제협력 처장으로 수고하시다가 최근에 거리관계상 사임을 하시고 지역교회 목회를 도우며 감사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 ▶ 안동성 목사님: 늘 주안에서 감사하며 평안히 계십니다.
- ▶ 이두섭 목사님: 목사님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으나 사모님께 서 매우 불편하시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 이유신 목사님: 본 KARMSS의 총무를 맡으셔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Kazakhstan의 수도 Astana에 소재한 동과대학의 대학원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달라는 초청을 받고 8월 말에 10일간 방문하였습니다.
- ▶ 정관봉 목사님 - 실리콘벨리 선교회 재임 회장이 되셔서 계속 수고를 하시며, 트라이벨리 노인들의 성경공부도 계속 지도하고 계십니다.
- ▶ 조수경 목사님 - 주안에서 평안하십니다.
- ▶ 최지웅 목사님 - 건강을 조심히 관리하시며 은혜가운데 계십니다.
- ▶ 현경봉 목사님 - 내외분께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잘 지내십니다.
- ▶ 현순호 목사님 - 계속하여 column을 쓰고 계시며 산호세 일원에 계시는 KARMSS 회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친교를 나누고 계십니다.

한국

통신 담당 - 백도현 목사님, 010-2920-8072 paikdohyun@hanmail.net

- ▶ 백도현 목사님 - 이양자 사모님과 함께 군월선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7월27-28에는 제 21회 군월선교회 장학생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8월 11-28일에는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서 군월선교회 후원자들과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 ▶ 양해건 목사님 - 두 분 다 건강하시며, 한국장로교(통합) 은퇴 목사회에 참여하며, 목사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 ▶ 황태준 목사님 - 전주 한일장신대학 신약학교수인 사위 차정식 목사님집 가까이에서 살며, 8월13-14일 양일간 장신 62회 동기들을 자택에 초청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 조삼임 사모님(고 이창일 목사) - 1주일에 3-4번 복지관에 가서 탁구를 치므로 건강을 유지하며, 힘껏 교회와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 ▶ 정길수 목사님은 아직 연락이 단지를 앓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아는 분이 없군요.
- ▶ 한국 방문중에 만난 노재상 목사님, 심만수 목사님과 함께 여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은퇴 목사님들 한국에 오시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 010-2920-8072 (백도현)



각 지역별 회원 소식



Synod of Rocky Mountains (CO, UT, WY) / Synod of Alaska/Northwest (WA, OR, AK, Canada)

통신 담당 - 허인회 목사님, (253) 341-4982(집), (404) 932-2729(M) andrew3huh@yahoo.com

- ▶ 김진숙 목사님 - 9월 19일에 시애틀 연합장로교회에서 팔순 축하 잔치를 가졌습니다.
- ▶ 그 외 특별한 소식은 없고 KARMSS 회원들 잘 계십니다.

Synod of S. California / Synod of Southwest (AZ, NM)

통신 담당 - 김국진 목사님, (310) 926-7736(M) gukgene@yahoo.com

- ▶ 김세훈 목사님 - 고령으로 인해 오랫동안 너싱홈에 거하면서 케어받으며 지내고 계십니다.
- ▶ 이은균 사모님 - 건강하게 지내며 시온성중양교회에 출석하면서 교회를 성실히 섬기고 계십니다.
- ▶ 이종수 목사님 - 지난 5월, 35년간 시무하던 따우젠한인장로교회를 은퇴하였고, 1개월 전에 모국 방문 중입니다. 신앙 시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 이춘방 목사님 - 오랫동안 병중에 계십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전승보 목사님 - 매주 한 차례씩 부에나팍 너싱홈에 나가서 예배 인도(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 ▶ 손자가 최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임관할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 ▶ 천방욱 목사님 -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토랜스제일장로교회에서 설교목사로 사역하면서 매주일 세 차례 설교하며 수 요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토랜스교회는 현재 목사 청빙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 홍춘만 목사님 - 6년간의 KARMSS 총무직을 마치고, 7월부터 1년간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성경 암송을 위한 교재 발간을 계획하고 있던 중, 목사가 공석중인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 (Salisbury, MD)의 요청으로 인테림 목사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Hawaii:

통신 담당 - 김종엽 목사님 (808)623-6928(집), (808)358-0344(M) / kimjongyoup@yahoo.com

- ▶ 김병순 목사님 - 사모님과 함께 은혜중, 별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 ▶ 김유민 장로님(오묘한 목사님) - 출석하는 에덴교회에서 새신자 관리부의 일을 맡아, 매주일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잘 지내십니다.
- ▶ 김종엽 목사님(김옥교 사모님) - 최근에 셋째아들(치과군의원)이 Fort Campbell, KY에서 Fort Bragg(Fayetteville, NC)으로 전속 승진되어 휴가차 하와이를 방문, 귀가하여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했습니다.
- ▶ 이디모데 목사님(이해나 사모님) - 두 내외분 건강하시며, 특히 아프리카 잠비아(Zambia)에 가서 공중위생 등으로 의료지원 봉사중에 있는 둘째 따님 가족 일행의 하와이 내방(7월 6일-18일)으로 격조하였던 부녀간의 가족재회의 즐거운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 ▶ 황인성 목사님 -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사모님의 신병이 중하여 치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 현경협 목사님 -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던 지난 7월 4일(토) 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15-2016년도 KARMSS 임역원 명단

회 장: 최명배 목사, 904-993-8659
부회장: 오광섭 목사, 571-264-9190
총 무: 이유신 목사, 530-902-0562
서 기: 박오현 목사, 336-501-5831
회 계: 이원걸 목사, 407-864-0046

복지부장: 안창의 목사, 718-702-7007
선교부장: 김경재 목사, 559-936-0381
친교부장: 이충남 목사, 718-309-8392
감 사: 이종민 목사, 224-558-1667
천방욱 목사, 818-606-3139

KARMSS 의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과 관심을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미국 장로교 한인은퇴목사 및 사모회

KOREAN ASSOCIATION OF RETIRED MINISTERS & SPOUSES & SURVIVORS PRESBYTERIAN CHURCH (U.S.A) - KARMSS-

* 본회 입회원서는 서기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주소: Rev. O'Hyun Park (336)501-5831
6266 Stonewick Dr. Jamestown, NC 27282
e-mail: parkohyun@gmail.com

(특히 신입회원은 입회원서와 회비를 서기에게 보내주십시오.)

* 회 비(1년 회비-부부 50불, 개인 30불)는 회계에게 보내주십시오.

주소: Rev. Won K. Lee (407) 864-0046
1288 Autumn Wood Trail, Sugar Hill, GA 30518
e-mail: wonklee@hotmail.com

To:

Rev. Yushin Lee
5423 Mariolyn Way
Elk Grove, CA 95757

